

책과 '인간의 길'

이태동

서강대 인문대 학장

책을 읽는데 무슨 특별한 계절이 있겠는가마는 예부터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고 한다.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찾아온 서늘한 가을은 하늘이 쪽빛으로 더 높고 밤이 길어서 책 읽고 사색하는 즐거움을 갖기에 대단히 적합한 등화가친(燈火可親)의 계절이기 때문이다. '독서의 계절'을 맞이하여 독서의 필요성과 우리 자신의 주변을 다시한번 성찰하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일찍이 송건호(宋建鎬)가 지적한 바와 같이 "독서에는 두가지 목적이 있다. 하나는 자기의 직업과 관계 있는 전문적 독서이고, 또 하나는 지식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일반 교양을 위한 독서이다. 지식에는 두가지 형이 있다. 하나는 단순한 사실지(事實知)이고 또 하나는 논리지(論理知)이다. 사실지라고 하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정보형(情報型) 지식이거나 화제형(話題型)이다. 지식인의 지식은 그것이 직업상의 전문적 지식이든 교양을 위한 지식이든 생각과 판단을 필요로 하는 지식이다."

인류의 정신문화 발달은 논리적 지식을 가져온 능동적인 독서행위에 그 기초를 두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다. 만일 능동적이고 이성적인 독서행위가 없다면 인류의 모든 문화활동은 물론 인간의 성숙한 성격형성은 중지상태에 머물게 될 것이다.

근자에 와서 영상매체의 발달로 인간의 독서행위가 크나큰 위협을 받고 있다. 영상매체는 독서행위를 대체시키는 결과를 가져와서 능동적인 인간으로부터 수동적인 인간으로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인간의 인격형성이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능력은 능동적인 경험과 사색을 통해서 오는 깨달음이라는 인식론적 결과로서 얻어지는 것이다. "남의 책을 읽는 데 시간을 보내라. 남이 고생한 것에 의해 쉽게 자기를 개선할 수가 있다"는 소크라테스의 충고나 "좋은 책을 읽는 것은 과거의 가장 뛰어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과 같다"는 데카르트의 말은 모두 다 위에서 언급한 능동적인 독서행위와 깊은 관계가 있다.

그래서 만일 우리들의 능동적인 독서행위가 영상매체에 의해 끝끝내 박탈당한다면, 인간은 지능적인 면에서나 판단력에서 퇴화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 그렇게 되면 아무리 과학문명이 발달하더라도 인간은 그것을 올바른 인간가치와 결합시킬 수 있는 이성적인 능력의 상실로 말미암아 아이러니컬하게도 스스로 기계의 노예가 되어 '인간의 길'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인간을 보다 나은 상태로 만드는 능동적인 독서행위를 위협하고 있는 것은 영상매체 뿐만 아니다. 책을 만들어내는 출판계 스스로가 독자들의 판단능력을 퇴화시키거나 감소시키는 일을 자행하고 있지 않은가. 일부 무책임한 저자와 출판업자들이 '시장경제의 원리'라는 이름아래 악서를 무분별하게 출판해서 현란한 시각매체와 함께 양서를 구축(驅逐)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산더미처럼 밀려오는 잡다한 정보와 책의 홍수 속에서 어떤 것이 양서인가를 판별할 수 있는 정직한 길잡이와 '독서의 파수꾼'을 절실히 필요로 한다. 책의 포장만 화려한 악서는 인간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감정교육'은커녕, 본능적인 욕구만 자극해서 인간을 원시적인 상태로 퇴화시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겠다. 그래서 혹시 어떤 책이 '베스트셀러'라는 이름 아래 잘못 선택되어 책 읽는 사람의 마음을 어지럽혀 판단력을 상실한 혼돈의 늪 속으로 빠뜨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불량한 '베스트셀러'가 독서인구의 저변확대라는 구실로 계속 존재하기에는 우리 주변의 '독서환경' 상황이 너무나 심각하다.

독서의 계절인 가을은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오지만 그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다시 찾아올 수 없는 귀중하고 소중한 순간들이다. 아무쪼록 무더위 뒤에 국화 향기와 쪽빛 하늘과 더불어 찾아온 풍요로운 사색의 계절이 무의미한 시간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한 권의 책이 우리들의 운명의 지침을 바꾸어 놓을 수 있다는 것이 결코 헛된 말이 아니기 때문이다.

| | | |
|------------|----|--|
| 초점 | 2 | 한·일 과거청산의 '열쇠찾기' 작업 활발 |
| 화제의 출판 | 3 | 소장학자들이 펴낸 '신한국사상사' 시리즈 |
| 출판가 동향 | 4 | "실용서의 상승곡선 뚜렷하다" 미리 살펴보는 '95년 하반기 출판 경향 |
| 신간읽기 | 6 | 강우방씨의 《한국 불교조각의 흐름》 |
| 출판화제 | 7 | 전문연구 축적한 공직자들의 저작물들 |
| | 8 | 한국 소설무대 해외로 넓혀간다 |
| | 9 | 파격의 즐거움으로 읽히는 요리책들 |
| 화제의 책 | 10 | 우리의 시각으로 살펴본 국내외 미술작가 |
| 얼굴 | 11 | 나무와 인간을 사랑하는 전우익씨 |
| 표지 | 11 | 책표지에 멋을 담았던 '능화판' |
| 책과 사상 | 12 | 문화의 고유성 통찰한 '문화예언자' - 노명식 오스발트 슈펜글러의 《서구의 몰락》 |
| 기획 시리즈 | 13 | 선율과 리듬의 매혹을 넘어서 - 강 헌 대중문화 시대를 이끄는 책 ③ |
| 책 뒤에 선 사람들 | 14 | 제본기술의 최고봉 '종이재단사' 최성식씨 |
| 출판계 소식 | 15 | 광복 50주년 기념 '국회도서관' 개최 · 외 |
| 특집 | 16 | 집념과 근면으로 일관한 '출판 외길' 출판 반세기를 이끌어온 作家 출판인들 ② |
| 책이 있는 에세이 | 20 | 내 정신이 꿈꾸는 눈부신 풍경 - 김영민 |
| | 21 | 기호의 무덤 속에 파묻혀 사는 인간 - 김혜순 |
| 서평 | 22 | 이진경 외 《철학의 탈주》 - 김인식 바커 외 《로크의 이해》 - 임효선 |
| | 23 | 타디에 《20세기 문학비평》 - 이재룡 |
| | 24 | 김창남 《대중문화와 문화실천》 - 김승현 오광수 《한국 현대미술의 미의식》 - 신향섭 |
| | 25 | 젠트 《위그너의 회상》 - 김기식 |
| 이 책 그 사람 | 26 | 《50일간의 유럽 미술관의 체험》 펴낸 이주현씨 《우리의 학맥과 학풍》 펴낸 이한우씨 |
| | 27 | 《눈으로 보는 로켓 이야기》 펴낸 채연석씨 《세상을 연다. 사람들을 연다》 펴낸 박찬숙씨 |
| 세계의 출판 | 28 | 핵폭탄 관련서 출간 러시 · 외 |
| | 30 | 신간안내 / 40 어린이 책 / 42 새로 나온 책 |